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업의 발전 방안

조연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choys33@seoulwomen.or.kr



I. 서울시 여성취업자¹⁾의 특성 분석

○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분석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1.3%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을 정점으로 하여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62.9%에서 2008년 62%, 2009년 60.8%로 2008년에 비해 1.2%p나 낮아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Florida State University 연구교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서울시 지역(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연구(2009)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2008)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 연구(2007) 등

1) 서울시 여성취업자 특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각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1〉 서울시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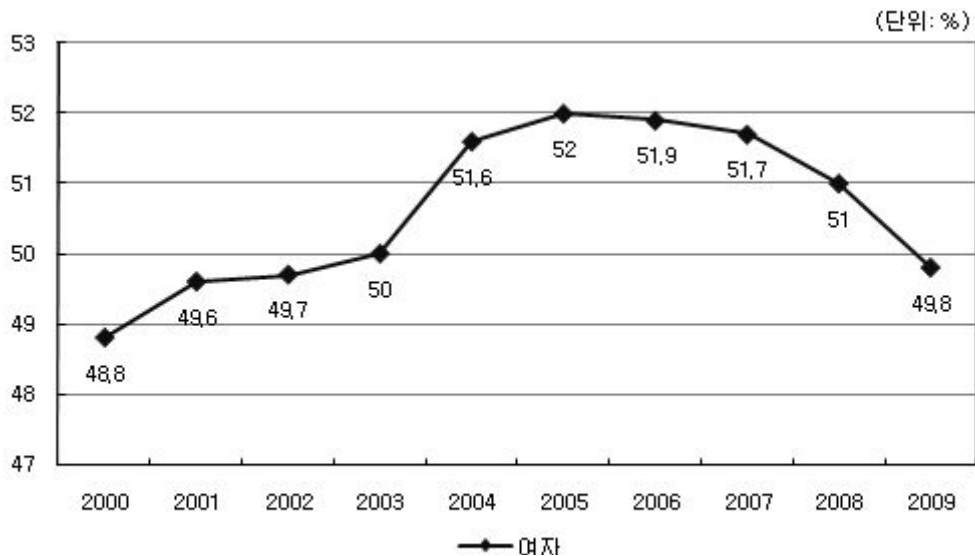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61.3	61.7	62.2	62.1	63.0	63.3	63.0	62.9	62.0	60.8
여자	48.8	49.6	49.7	50.0	51.6	52.0	51.9	51.7	51.0	49.8
남자	74.6	74.5	75.3	74.8	75.1	75.3	74.7	74.7	73.7	72.5
남녀차이	25.8	24.9	25.6	24.8	23.5	23.3	22.8	23	22.7	2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유사하게 경향을 보이며 2000년 48.8%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하여 2005년 52%로 정점에 있었으나 2006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9년에는 50%에도 채 못 미치는 49.8%로 감소함. 여성경제활동참가 증감율은 10년 전인 2000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약1.0%p 증가한 것에 불과함
-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차이는 2000년 25.8%p에서 매해 조금씩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며, 2009년 남녀차이는 22.7%로 좁혀져서 10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3.1%p 좁혀짐



[그림 1]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서울시 여성 취업자 수

- 2009년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중 실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전체 취업자 수는 4,835천명이며 이는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169천명 많아진 것임
- 이 가운데 여성은 2000년 1,924천명에서 2009년에는 2,057천명으로 133천명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2000년 2,743천명이었으나 2009년 2,779천명으로 10년 기간 동안 36천명 증가한 것에 불과함

〈표 2〉 서울시 성별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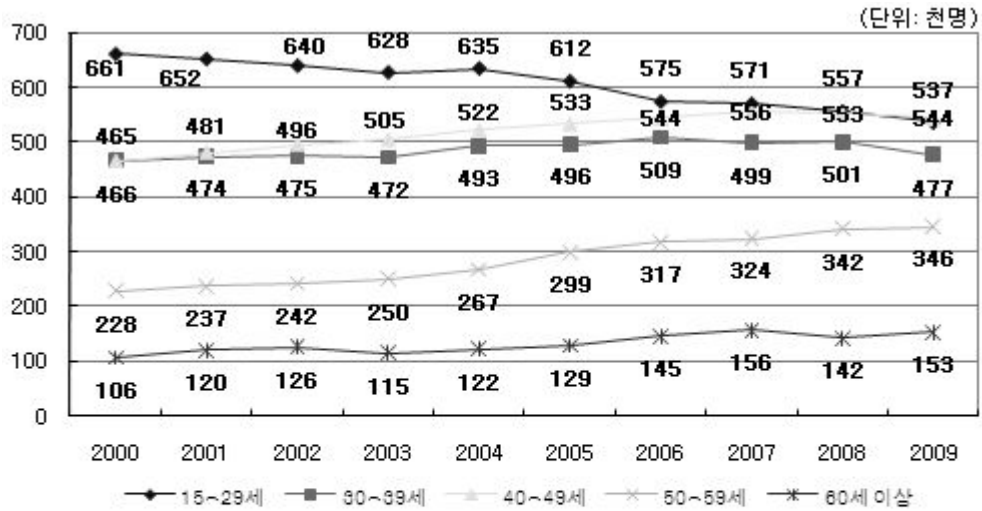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4,906	4,940	4,922	4,835
여자	1,924	1,963	1,978	1,972	2,039	2,068	2,091	2,107	2,095	2,057
남자	2,743	2,764	2,804	2,781	2,792	2,822	2,815	2,834	2,827	2,7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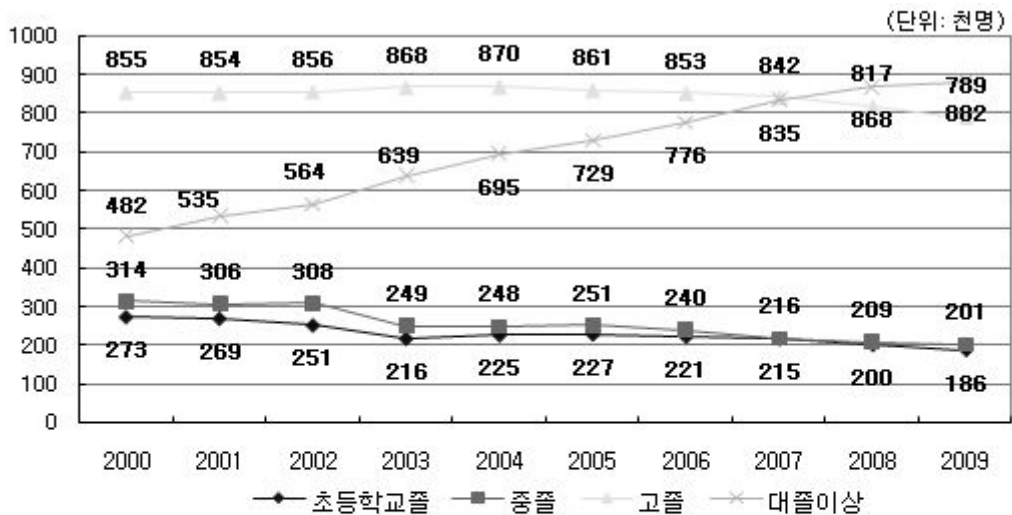
- 15~29세 사이의 청년 취업자 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30~39세는 감소와 증가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0세 이후 취업자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40~49세 여성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 2009년 약간 감소하고 있음
- 50~59세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의 폭도 비교적 큰 편이어서 2000년 기준으로 34.1%p 증가함
-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40대 이후 50대, 60대 이후 연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변화 추이

○ 여성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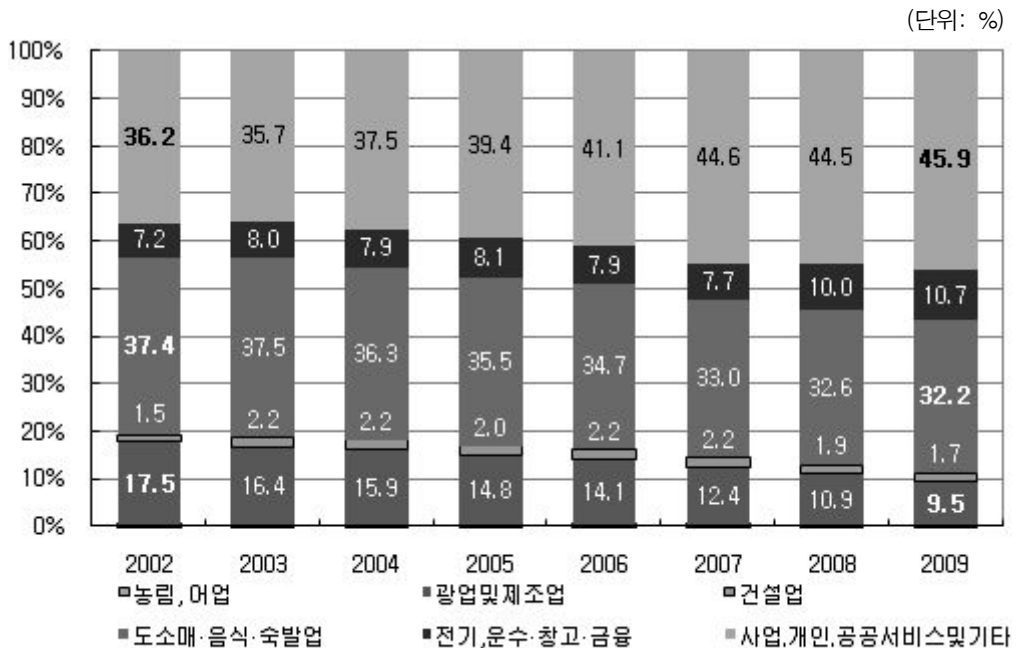
- 취업자의 학력별 변화 추이가 어떤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고학력 여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학력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임.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대졸여성 취업자 수가 고졸여성 취업자 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그림 3] 서울지역 여성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²⁾에 따른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여 2002년 여성취업자 중 17.5%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 9.5%에 불과하여 8%p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취업자 비중은 2002년 36.2%에서 2009년 45.9%로 10년간 9.7%p 증가하고 있음. 이것은 서울시 전반적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요구되는 산업 인력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 한편, 그동안 여성 취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2002년 37.4%에서 2009년 32.2%로 5.2%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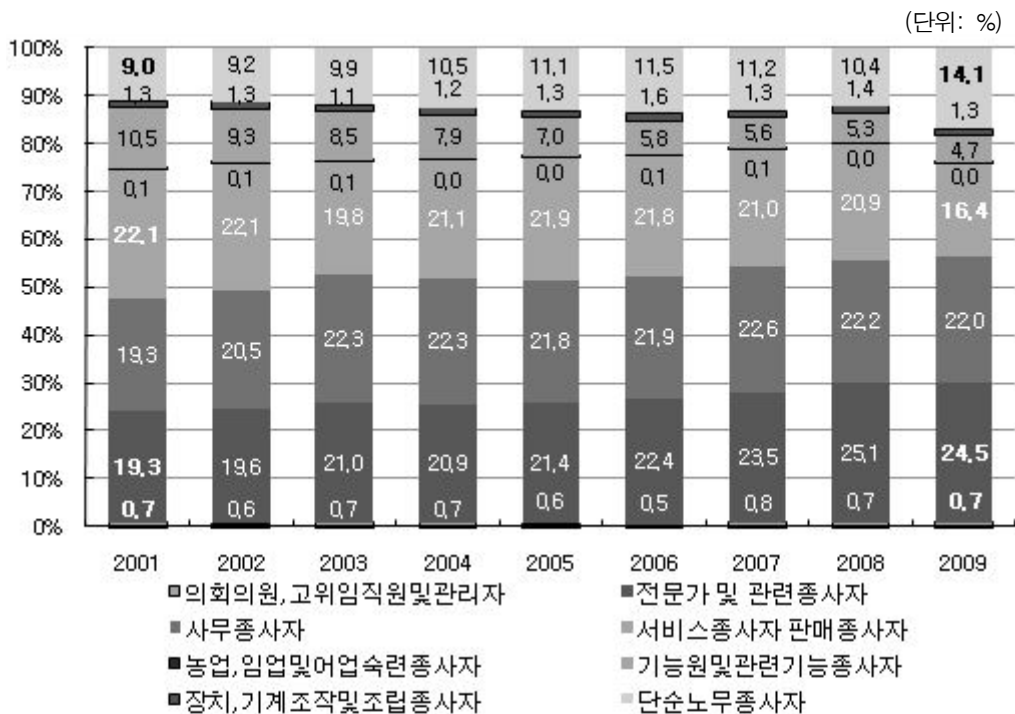


[그림 4] 서울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추이²⁾

2) 2002년 이전 조사는 동일한 업종군으로 조사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하여 2002년부터 결과를 비교하였음

○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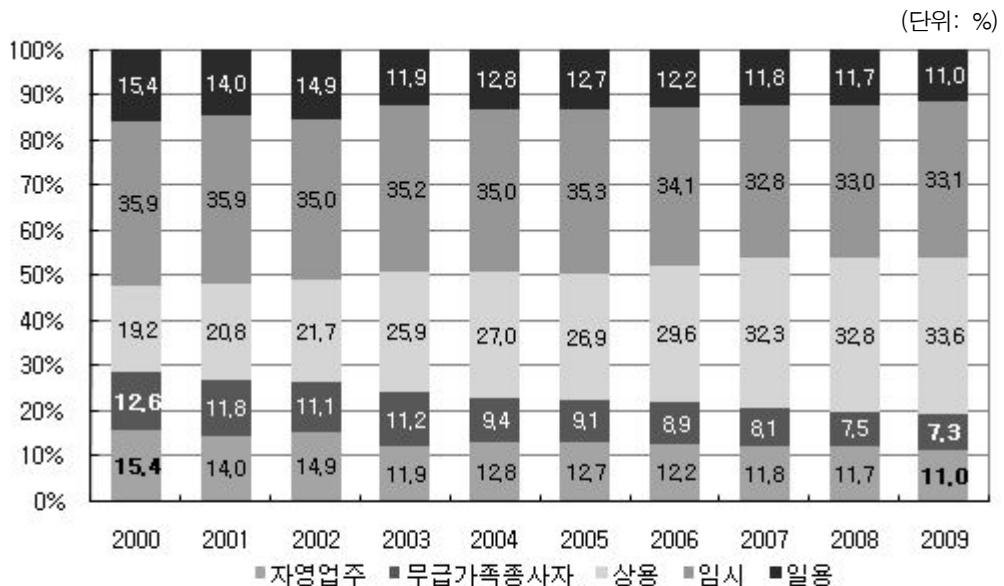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2001년 0.7%에서 2009년에도 똑같이 0.7%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19.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24.5%로 해당기간 동안 5.2%p 증가하였으며, 전문가나 중간 관리자 항목에서 여성취업자 비율이 약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비중은 2001년 22.1%였으나 2009년 16.4%로 감소하여 해당기간 동안 5.7%p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2001년 9.0%에서 2009년 14.1%로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의 양극화 현상을 알 수 있음



[그림 5] 서울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추이

○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 서울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자영업의 경우 2000년 15.4%에서 2009년 11.0%로 10년 동안 4.4%p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도 2000년 12.6%에서 2009년 7.3%로 5.3%p 감소되고 있는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70.5%에서 2009년 77.7%로 10년 동안 7.2%p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 비중이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지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6] 서울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추이

II. 서울시 여성 취업의 발전 방안

- 서울시 여성 취업의 발전방안을 앞서 분석한 서울시 여성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취업자 특성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여성 취업의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중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특성 분석을 통해 서울시 여성 취업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0년 전에 비해 겨우 1.0%p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한계는 여성 경제사회 활동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여성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취업 지원 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으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활양식의 변화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기업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정책적 개선노력이 평가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 보육부담의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서울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상태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율의 증가폭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감소폭을 보였음
- 여성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연령별 특징으로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40대, 50대 이후 취업자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에서 취업자 수의 감소와 함께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어 청년실업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규교육 과정에서 취업을 위한 진로 교육이 강화되

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이후 직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각종 취업직종에서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50대 이후 중고령층 취업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중고령 및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종개발을 통해서 취업욕구에 대응해야 할 것임

○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추이분석에서 국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직업의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음

- 국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낮은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으로 이들 직업 분야에 대한 할당제의 강화,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선도적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관리직 공무원 비율, 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사기업에도 관리직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함

○ 취업자의 여성 종사상 지위에 대한 추이분석을 통해서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주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임금근로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 사용근로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1.7배 상승하고 있음

- 이는 여성의 근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무적인 현상이라 판단됨
- 그러나 여전히 임금수준의 남녀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근로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의 한계는 여성 취업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정액급여 기준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8.1%에 불과(노동부, 2009)하며,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OECD 선진국 평균(2007년, 8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과 낮은 임금 수준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임

○ 결론적으로 서울시 여성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 및 목표설정과 이를 토대로 중단기적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 장기적 비전 및 목표설정은 향후 5년 혹은 10년 이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달성
- 중단기적 추진과제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창업 연계시스템의 지속적인 성과 평가 등 관리 방안의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음 **SDI**

참고문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2000~2009)
- 노동부, 2009년도 여성과 취업